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중섭

[李仲燮]



이중섭

1916~1956, 한국 근대서양화의 대표 화가. 주요 작품으로는 <서귀포의 환상(1951)>, <물고기와 노는 세 어린이(1953)>, <황소(1954~1954)>, <달과 까마귀(1954)> 등이 있다.

이칭별칭	호 대향, 大鄉
유형	인물
시대	근대
출생 - 사망	1916년 ~ 1956년
성격	서양화가
출신지	평안남도 평원군
성별	남
저서(작품)	싸우는 소, 흰소, 움직이는 흰소, 소와 어린이, 황소, 투계, 닭과 가족, 사내와 아이들, 길 떠나는 가족
대표관직(경력)	미술창작가협회전 태양상(太陽賞) 수상, 원산사범학교 미술 교사

목차

정의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작품세계
----	----	-----------	------

정의

1916~1956. 서양화가.

개설

호는 대향(大鄕).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이희주(李熙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오산고등보통학교(五山高等普通學校)에 들어가 당시 미술 교사였던 **임용련**(任用璣)의 지도를 받으면서 화가로서의 꿈을 키웠다.

생애 및 활동사항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가 분카학원[文化學院] 미술과에 입학하였다. 재학 중 독립전(獨立展)과 자유전(自由展)에 출품하여 신인으로서의 각광을 받았다.

분카학원을 졸업하던 1940년에는 미술창작가협회전(자유전의 개칭)에 출품하여 협회상을 수상하였다. 1943년에도 역시 같은 협회전에서는 태양상(太陽賞)을 수상하였다.

이 무렵 일본인 여성 야마모토[山本方子]와 1945년 원산에서 결혼하여 이 사이에 2남을 두었다. 1946년 원산사범학교에 미술 교사로 봉직하기도 하였다.

북한 땅이 공산 치하가 되자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친구인 시인 구상(具常)의 시집 『응향(凝香)』의 표지화를 그려 두 사람이 같이 공산주의 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나고, 유엔군이 북진하면서 그는 자유를 찾아 원산을 탈출, 제주도를 거쳐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부인과 두 아들은 일본 동경으로 건너갔으며, **이중섭**은 홀로 남아 부산·통영 등지로 전전하였다. 1953년 일본에 가서 가족들을 만났으나 며칠 만에 다시 귀국하였다. 이후 줄곧 가족과의 재회를 염원하다 1956년 정신이상과 영양실조로 그의 나이 40세에 **적십자병원**에서 죽었다.

화단 활동은 부산 피난 시절 박고석(朴古石)·한묵(韓默)·**이봉상**(李鳳商) 등과 같이 만든 기초전(其潮展)과 신사실파에 일시 참여한 것 외에 통영·서울·대구에서의 개인전이 기록되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인간적인 에피소드와 강한 개성적 작품으로 1970년대에 이르러 갖가지 회고전과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972년 현대화랑에서의 유작전과 화집 발간을 위시하여, 평전(評傳)의 간행, 일대기를 다룬 영화·연극 등이 상연되었으며, 많은 작가론이 발표되었다.

작품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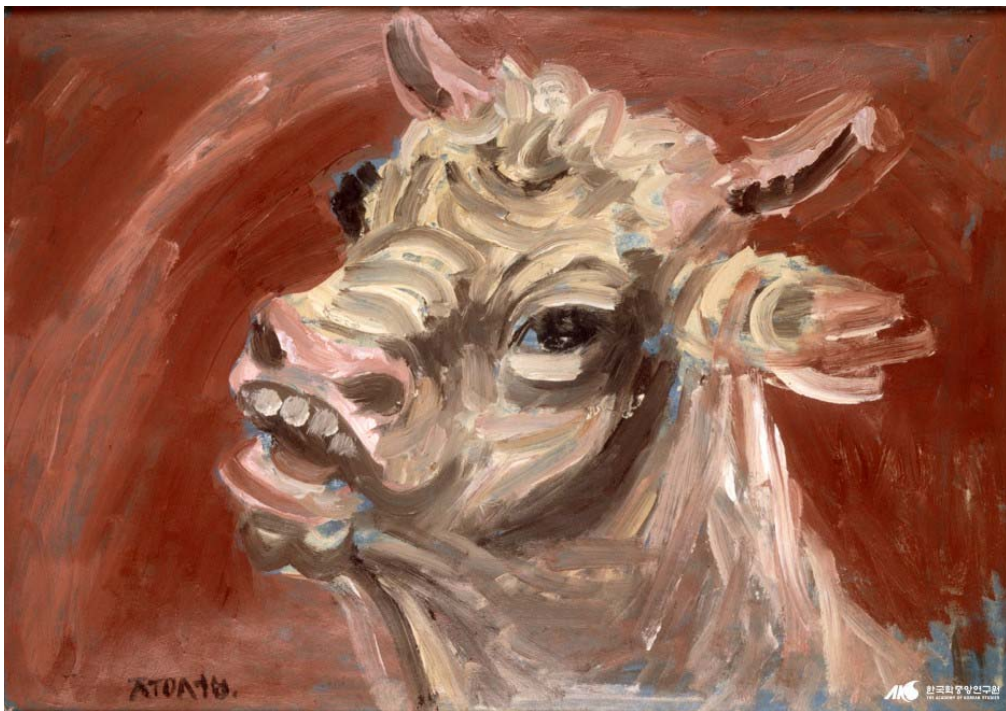
그가 추구하였던 작품의 소재는 소·닭·어린이[童子]·가족 등이 가장 많다. 불상·풍경 등도 몇 점 전하고 있다. 소재상의 특징은 향토성을 강하게 띠는 요소와 동화적이며 동시에 자전적(自傳的)인 요소이다.

「싸우는 소」·「흰소」(이상 홍익대학교박물관 소장)·「움직이는 흰소」·「소와 어린이」·「황소」(이상 개인 소장)·「투게」(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등은 전자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닭과 가족」·「사내와 아이들」·「길 떠나는 가족」(이상 개인 소장)과 그밖에 수많은 은지화(담뱃갑 속의 은지에다 송곳으로 눌러 그린 일종의 선각화)들은 후자를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참고문헌

『이중섭: 30주기특별기획전』(중앙일보사, 1986)

관련이미지 (4)



황소/이중섭

이중섭, <황소>, 캔버스에 유채, 28.8×40.7cm, 삼성미술관 리움. 이중섭은 향토적인 소재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소'는 이중섭을 대표하는 작품의 소재이다. 이중섭의 <황소>는 작품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울부짖는 듯한 소의 모습이 붉은 바탕과 대비되어 강렬함을 표출하는 작품이다.


[이미지 갤러리](#)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4



위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출처사이트 게시자에게 있으며, 이를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KOREAN ACADEMY OF KOREAN STUDIES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